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4]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8. 21 | 발행인 : 민무숙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성별·직렬·직급별 비교 -

이해응 · 신승배¹⁾

목 차

1. 연구 개요
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현황
3. 직렬에 따른 성평등 의식 현황
4. 직급에 따른 성평등 의식 현황
5. 정책적 시사점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9년 제주지역 공무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²⁾ 원 자료를 재분석하여 성별, 직렬, 직급에 따른 성평등 의식 현황을 드러내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무원은 도민 대상 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렬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직급별 체계가 분명하여 직렬·직급별 성평등 의식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나. 조사 개요

응답자 특성	조사 내용
인원 : 공무원 응답자 452명 중 여성 197명, 남성 255명. 직렬 : 행정 248명, 기술 97명, 기타(학예, 관리운영) 107명. 직급 : 일반직 8-9급 128명, 6-7급 203명, 5급이상 35명, 특정직 86명. 근무지 : 본청 142명, 행정시 107명, 읍면동 110명, 직속기관 등 93명. 평균 근속년수 : 12.6년	성역할 고정관념 : 가정/문화/직장의 성역할 고정관념 11 문항 성역할 변화 : 경제·돌봄 역할, 직업 성별분리 완화 등 4 문항

다. 성평등 의식 조사 내용

- 성평등 의식을 알아보는 15개 문항³⁾에 대해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변화’ 두 개의 주성분이 유의미하게 추출됨
 -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은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성역할 변화 문항은 고정관념을 깨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수준을 측정하는 것임

표 1 성평등 의식 문항 영역별 구분 및 내용

구분	영역	문항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가정	①가구소득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②생계부양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③의사결정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	
		④전업주부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⑤여성의 자녀돌봄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생활보다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⑥제사의례	제사 의례는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	
		⑦제사음식	제사음식은 주로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	
	문화	⑧남성성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⑨친밀관계	남녀(이성) 관계에서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직장	⑩직장업무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⑪여성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고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역할 변화	경제·돌봄	⑫여성경제자립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⑬남성의 자녀돌봄	남성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직업	⑭여성밀집직종완화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남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⑮남성밀집직종완화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2) 조사 설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응·신승배(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169쪽 참조

3) 15개 문항 중 13개는 전국 양성평등실태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옮기고 ⑥, ⑦문항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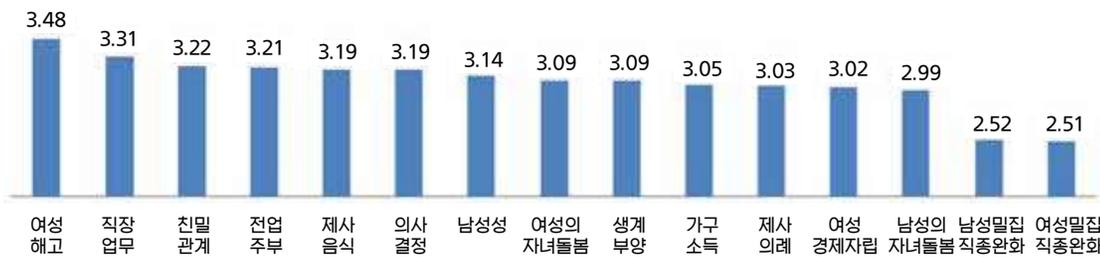
2. 성별에 따른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현황

-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이고,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고,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함. 예를 들어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반대함을 의미함

■ 전체 성평등 의식 수준 보통 이상, 직업 성별분리 및 남성의 자녀돌봄 의식 수준 가장 낮아

- 대부분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나와, 공무원의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 수준은 보통 이상임
- 직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남성의 자녀 돌봄 의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영상 감원 필요 시 여성 우선 해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여성상사 불편에 대한 고정관념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제주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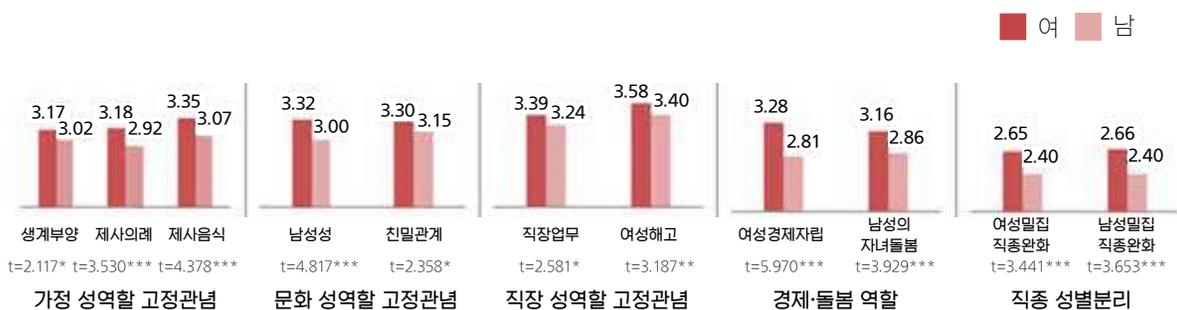


■ 모든 영역별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의식이 높고, 남녀 직장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낮아

- 남녀 모두 직장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문화/직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경제·돌봄 성역할, 직업 성별분리 영역 모두에서 여성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정 성역할 고정관념은 생계부양, 제사문화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현황





■ 여성경제자립에 대한 인식 수준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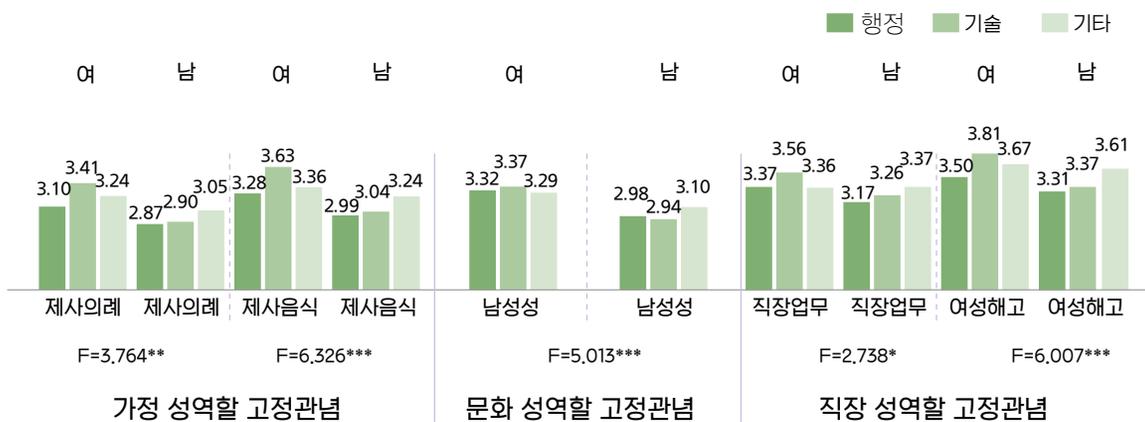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에 대한 인식에서 0.47점의 가장 큰 성별격차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강하게 여성경제자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그 다음 순으로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에 대한 인식에서 0.32점, “남성은 혼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인식에서 0.30점의 성별격차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성성 성역할 고정 관념에 더 반대하고, 남성의 자녀돌봄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음

3. 직렬에 따른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 현황

■ 제사문화와 직장업무에 대한 기술 직렬 여성의 고정관념 최저, 행정 직렬 남성의 고정관념 최강

- 가정 성역할 고정관념 중 특히 제사문화에 대해 기술 직렬의 여성의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행정 직렬의 남성의 고정관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중 특히 ‘강한 남성성’에 대해 남녀 모두 같은 성별 집단 내 직렬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들의 고정관념이 여성에 비해 강한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직장 성역할 고정관념 중 ‘여성상사 불편’과 ‘여성 우선해고’에 대해 기술 직렬 여성의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행정직 남성의 고정관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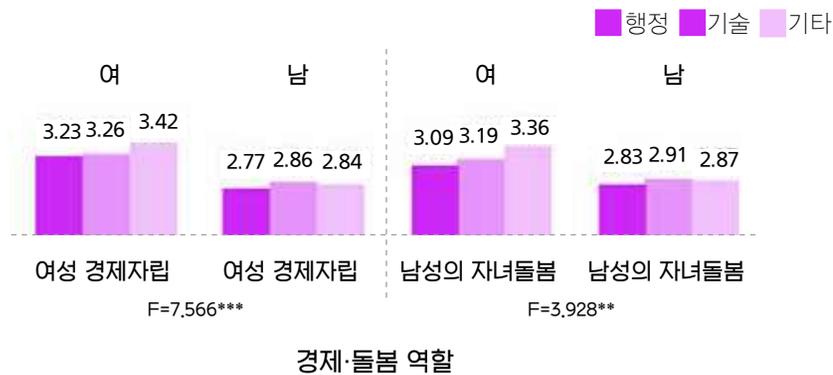
[그림 3] 직렬·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 여성경제자립과 남성자녀돌봄에 대해 기타 직렬 여성 가장 찬성, 행정 직렬 남성 가장 부정적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자녀 돌봄 의무에 대한 인식에서 기타 직렬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행정 직렬 남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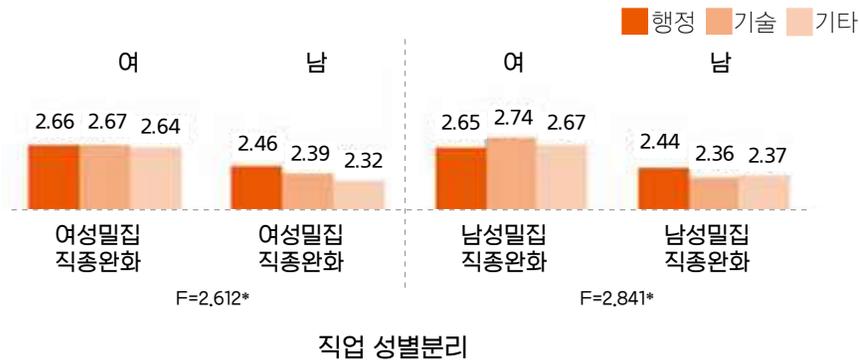
[그림 4] 직렬·성별에 따른 경제·돌봄 역할 인식



■ 직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해 기술 직렬 여성이 가장 찬성, 기타/기술 직렬 남성이 가장 부정적

- 직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한 인식은 기타 문항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인식 수준을 보임
-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남성이 진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여성 집단 내 직렬 격차는 크지 않고 기타 직렬 남성이 가장 부정적이고,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기술 직렬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기술/기타 직렬 남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직렬·성별에 따른 직업 성별분리 인식



4. 직급에 따른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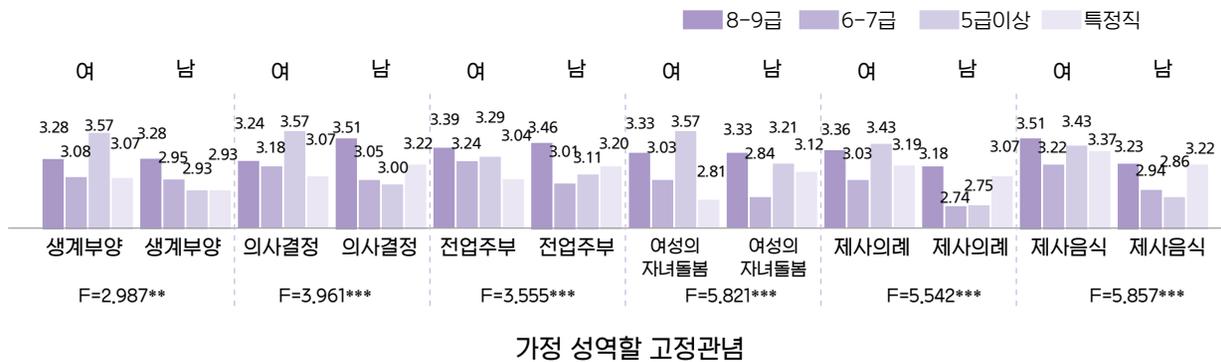
■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직 5급이상/8-9급 여성이 최저, 5급이상/6-7급 남성이 최강

- 5급이상 여성은 ‘가구의 생계부양은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이 해야 한다’, ‘제사의례는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경영상 감원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해야 한다’ 등 대부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인식 수준을 보이지만, ‘여성의 자녀돌봄 우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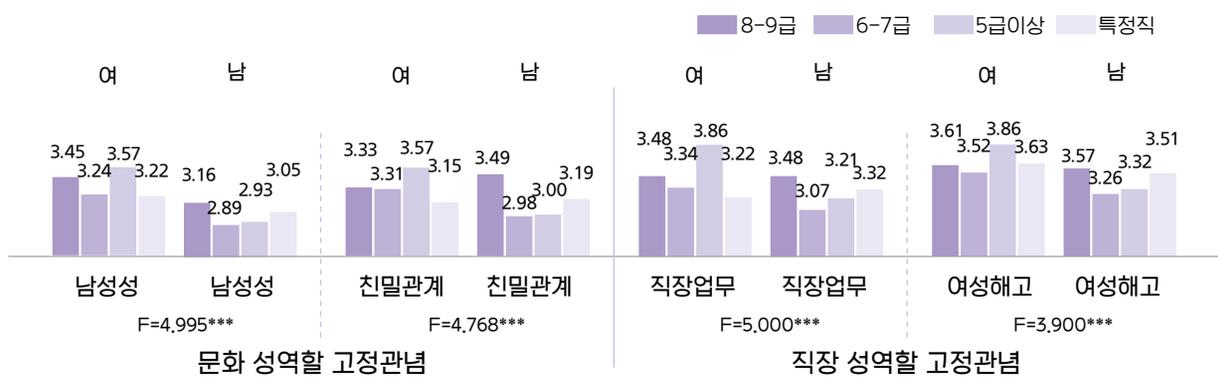


- 8-9급 여성은 성역할 고정관념 중 특히 '제사음식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가장 반대하고, 8-9급 남성은 특히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8-9급 남녀 공무원은 대부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슷한 인식 수준을 보였는데, 제사문화와 남성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이 더 반대하고, 의사결정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5급이상/6-7급 이상 남성은 대부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고정관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직장 생활보다 자녀돌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와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에 대해서는 6-7급 남성이 더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소방, 경찰 등 특정직 여성은 '여성은 직장생활보다 자녀 돌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에 대해 6-7급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정관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직급·성별에 따른 가정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그림 7] 직·성별 따른 문화/직장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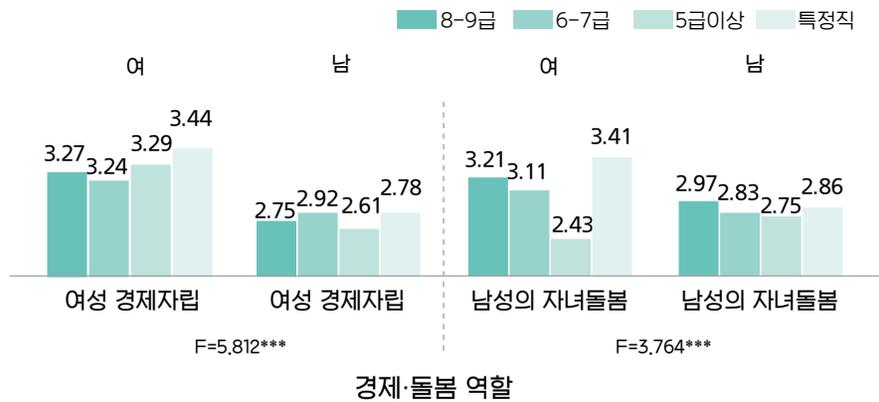


■ 여성경제자립과 남성자녀돌봄 역할에 대해 특정직 여성이 가장 찬성, 5급이상 남녀 가장 부정적

-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에 대해 소방, 경찰 등 특정직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5급 이상 남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혼자서 자녀를 돌 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 소방, 경찰 등 특정직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5급이상 여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직급·성별에 따른 경제·돌봄 역할 인식



■ 직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해 8-9급 여성이 가장 찬성, 특정직 남성/5급이상 여성이 가장 부정적

-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남성이 진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8-9급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소방, 경찰 등 특정직 남성과 5급이상 여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에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8-9급 여성이 가장 찬성하고, 5급 이상 여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직급·성별에 따른 직업 성별분리 인식



5. 정책적 시사점

■ 성평등 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 개선, 수준 격차가 가장 큰 영역 집중 해소 필요

직업 성별분리 인식 개선 교육 필요

여성경제자립, 남성자녀돌봄 성역할에 대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여성자녀돌봄 성역할에 대한 여성 공무원 직급별(5급이상/특정직) 인식 격차 해소

- ▶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대체로 완화되고 있는 편이지만, 직업 성별분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 직업은 진로교육, 임금·승진, 경력개발 등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 성별분리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성별 문화격차, 일자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함
-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자녀 돌봄'에 대한 성역할 변화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성역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직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강한 남성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 "여성은 직장생활보다 자녀 돌봄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해 소방, 경찰 등 특정직 여성이 가장 허용하고 5급이상 여성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정직 내 여성이 주변적 직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식 개선 내용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모든 직렬 남성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필요

행정 직렬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경제·돌봄 역할 인식 개선 교육 기술/기타 직렬 남성의 직종성별분리 인식 개선 교육

- ▶ 행정직 남성 공무원의 가정/직장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강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남성의 자녀 돌봄'에 대한 성역할 변화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행정 직렬 남성 공무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및 성역할 변화 의지 강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 기술/기타 직렬 남성 공무원이 직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기술 직렬 여성 공무원의 직업 성별분리 인식 수준이 가장 높는데 이는 '기술은 남성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진출한 경험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성별분리를 깰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와 성인지적 관점의 진로교육 및 취창업 지원 사업 기획이 필요함

■ 직급별, 직급·성별 격차로 인한 잠재적 갈등 해소 필요

5급이상 남녀 공무원의 성역할 인식 격차 해소 소방, 경찰 등 특정직 남성 직업 성별분리 완화 의지 향상 제사문화 성역할에 대한 8-9급 여성과 5급이상 남성 간 인식 격차 해소

- ▶ 5급이상 여성이 5급이상 남성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 및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성역할 변화 의지가 훨씬 높아 같은 직급별 내적 갈등이 예상됨. 5급이상 남성 공무원 특화 인식 개선 교육과 실·국장 도지사 정기회의 모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일상적 인식 개선 교육 전략을 고려할 필요 있음
- ▶ 소방, 경찰 등 특정직 남성이 직업 성별분리 완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임. 특정직의 명령체계가 수직적인 업무 환경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직업 성별분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 '제사음식은 주로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에 대해 8-9급 여성(최고)와 5급이상 남성(최저)의 인식 수준 격차가 가장 심각하여 가족 내 제사 및 마을 공동체 제사의례 활동 과정에 내적 갈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가족 내 성평등한 제사 지내기, 마을 포제 등 의례과정에 여성 참여 향상 등 전략이 필요함